

부모 간 갈등이 남녀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

이형실^{1*}, 오샘물²

¹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²중앙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과 학생

The Mediating Effects of Aggress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Conflict and Peer Relations for Male and Female Adolescents

Hyong-Sil Lee^{1*}, Seam-Mull Oh²

¹Professor,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Chung-Ang University

²Student,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Chung-A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부모 간 갈등이 공격성을 매개로 하여 남녀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에 있는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남녀 학생 482명이었다. 본 연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이 인식하는 부모 간 갈등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공격성과 또래관계에서는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부모 간 갈등과 공격성, 또래관계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부모 간 갈등이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남자 청소년 집단에서는 부모 간 갈등이 공격성에 부분매개 되어 남자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청소년 집단에서는 부모 간 갈등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격성이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의 또래관계를 청소년의 부모 및 가족 경험과 청소년 개인의 심리 정서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주제어 : 부모 간 갈등, 공격성, 또래관계, 적응, 청소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aggress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conflict and peer relations among adolescents. Data from 482 middle school students of Seoul by self-reported questionnaires are analyzed for the study.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 that there are gender differences in aggression and peer relation of adolescents. For both male and female adolescents, parental conflict is positively related to aggression. Aggression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peer relations of adolescents. Parental conflict and peer relations of adolescents are negatively related. The results from regression analysis indicate that aggression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conflict and peer relations for male and female adolescents. This results suggest the need to consider family experiences and emotional states for understanding of peer relationships in adolescents.

Key Words : Parental conflict, Aggression, Peer relations, Adjustment, Adolescents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Chung-Ang University Research Scholarship Grants in 2017.

*Corresponding Author : Hyong-Sil Lee (hslee97@hotmail.com)

Received January 10, 2019

Revised February 1, 2019

Accepted February 20, 2019

Published February 28, 2019

1. 서론

청소년기는 아동이 성장하여 성인이 되기까지의 과도기로서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많은 변화와 갈등을 경험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친구관계가 원만하지 않거나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은 집단 따돌림, 학교폭력 및 우울증이나 반사회적 행동 같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1].

청소년은 또래와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방법, 사회적인 기술, 적응능력 등을 배우고 소속감을 느끼게 되며, 청소년기에 형성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친구관계는 미래 성인의 대인관계와 정신건강 및 비행 행동 등의 적응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2]. 또래 관계는 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특히 사회적, 심리적 부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

현대 가족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핵가족은 인간관계의 범위가 부부와 부모자녀관계로 축소되므로 부부관계는 자녀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4]. Cummings, Ballard, El-Sheikh와 Lake[5]에 따르면 부모 간 갈등은 5세에서 청소년 말기에 이르기까지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과 청소년에게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부모 간 갈등은 자녀의 공격성[6]과 행동장애[7]나 우울, 불안, 사회적 고립과 같은 내면화 장애[8]와 관련성이 높으며, 사회적 능력[9]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부모 간 갈등의 빈도가 높을수록 자녀는 스트레스와 분노, 불안정감을 경험하는 심리적인 문제가 심해진다[10].

이처럼 부모 간 갈등은 아동의 성장기 전체에 걸쳐 영향을 미치며, 부부관계는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11]. 자녀가 성장기에 받은 부정적인 영향은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성인기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가족과 또래관계 경험은 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최근의 연구들은 가족과 또래집단에서의 자녀의 경험 간 관련성에서 특히 가족 내 요인이 자녀의 또래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해왔다[12]. Gottman과 Katz[13]는 부부갈등이 심한 경우 자녀의 스트레스와 분노 수준이 높고, 이는 또래와의 부정적 상호작용과 관련된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부모 간 갈등이 청소년의 또래 경험과 관련되

는 과정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에 초점을 두었다.

공격성은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심리적인 해를 입히는 의도적인 행동이라고 정의된다. 또한 공격성은 다른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언어적, 신체적 공격 행동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동을 야기하는 정서 상태인 분노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14]. 청소년의 공격성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더욱 심각하고 다양한 반사회적 행동이나 범죄 및 정신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15], 이 시기에 적절한 개입이 중요하다.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청소년은 친구에게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하는 빈도가 높고 학업성취도가 낮으며, 가정과 학교 등에서 부적응의 문제를 나타낼 수 있다. 아동기에 형성된 공격성은 이후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까지 지속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16].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부모 간 갈등은 자녀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부모 간 갈등은 자녀가 부모 간의 갈등과 분노를 관찰하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데 필요한 대처기술과 능력을 발달시키는데 영향을 주며 자녀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17]. Parke와 Ladd[12]에 따르면 심한 부부 간 갈등은 자녀의 높은 스트레스와 분노, 부적응 행동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또래와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미친다. 자녀는 부모가 서로의 대립을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보면서, 이를 모델링하여 또래와의 대립이 생겼을 때 공격적인 행동으로 대처하게 된다[10]. 또한 부부관계에서의 문제는 자녀가 경험하는 또래와의 상호작용 문제와 관련이 있고[5], 아동기에 부모 간 갈등에 노출된 경험은 청소년의 또래에 대한 공격성을 예측하였다[18]. 높은 수준의 부모 간 갈등을 경험한 청소년은 자신의 사회적 능력과 수준이 낮은 것으로 인식하였다[19]. 국내연구에서도 부모 간 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은 친구를 부정적으로 지각하며 또래에 대한 애착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20]. 이처럼 부모 간 갈등은 자녀의 또래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부모 간 갈등이나 폭력에 노출되었을 때 자녀의 공격성이 발달한다[21]. 부모 간 갈등 같은 분노가 표출되는 상황에 노출되면 자녀의 부정적 정서와 스트레스가 유발되고, 자녀는 공격적 행동을 일으킬 수 있다[22]. 부모 간 갈등은 자녀의 분노 표출 및 공격성과 높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23]. 부모 간의 갈등이 자

주 일어나고 갈등의 정도가 크며, 갈등 후에 해결이 잘 안된다고 자녀가 지각하는 경우 자녀의 공격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24], Cha, Lee와 Hwang[25]의 연구에서도 부모 간 갈등을 높게 지각하는 청소년일수록 공격성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부부 간 폭력에의 노출은 자녀의 공격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26], 폭력적인 부모 간 관계를 접한 자녀는 신체적으로 더 공격적이라는 결과가 보고되었다[8].

아동 및 청소년의 공격성은 부정적인 또래관계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공격성을 보이는 아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같은 학급이나 또래 집단 안에서 배척되고 수용되지 못함으로써 적절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지 못하게 되고, 이는 결국 사회적 부적응과 연결 된다[27]. 공격성이 높을수록 또래와의 관계에서 신뢰를 보이지 못하며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28]. 공격성이 높을수록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사회적 단서를 적대적인 방식으로 해석하며 공격적 반응을 야기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9]. 초기 청소년은 공격성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또래관계를 부정적으로 지각하였다[30]. 공격성은 또한 또래거부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된다. Coie와 Dodge[27]는 공격성이 또래거부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하였다. 공격성이 높은 청소년은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또래로부터 수용되지 못하고 거부당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29].

이처럼 부모 간 갈등이 청소년의 발달과 사회적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들이 서로 관련되는 과정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과 논의를 통해 개입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부모 간 갈등과 공격성, 또래관계는 서로 관련되지만 부모 간 갈등과 또래관계가 연결되는 과정에서 공격성의 매개역할을 다룬 국내연구는 거의 없다. 선행연구를 통해 부모 간 갈등이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부모 간 갈등으로 형성된 공격성을 매개로 하여 청소년의 또래관계로 연결되는 경로를 예상할 수 있다. 또한 공격성과 또래관계에서 남녀 차이가 종종 보고되므로[31,32], 부모 간 갈등이 공격성을 매개로 하여 또래관계로 연결되는 경로에 남녀 청소년 간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 간 갈등이 공격성을 매개로 하여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남녀 간 차이가 있는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모 간 갈등이 공격성을 매개로 하여 남녀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통하여 청소년의 또래관계 개선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규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부모 간 갈등, 공격성 및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남녀 간 차이가 있는가?

둘째, 부모 간 갈등, 공격성 및 남녀 청소년의 또래관계 간 관련성은 어떠한가?

셋째, 부모 간 갈등이 남녀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격성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에 있는 4개 중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중학교 3학년 학생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총 60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회수된 548부 중 응답내용이 불성실한 질문지를 제외하고 482부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조사 대상자는 남학생이 232명(48.1%), 여학생이 250명(51.9%)이었다.

2.2 연구도구

2.2.1 부모 간 갈등

청소년이 인식한 부모 간 갈등을 측정하기 위해 Seo와 Lee[33]가 수정한 CPIC(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부 갈등상황에서의 행동과 갈등상황 이후의 행동에 대한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부모 간의 갈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갈등 수준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부모 간 갈등에 대한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는 .904로 나타났다.

2.2.2 공격성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 Seo와 Kwon[34]의 척도를 수정하여 총 8문항으로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신체적 공격성, 분노감, 적대감의 세 가지 요인으

로 구성되었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공격성에 대한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는 .840이었다.

2.2.3 또래관계

또래관계를 측정하기 위하여 Ahn과 Lee[32]의 친구관계의 질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15문항으로 구성된 5점 리커트 척도로서, 친구의 긍정적 기능을 측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관계가 긍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는 .952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 각 변인들의 빈도, 평균과 표준편차 등 기술 통계치를 산출하였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s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고, 부모 간 갈등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격성의 매개효과

를 확인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35]의 단계에 따른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성별에 따른 차이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부모 간 갈등, 공격성과 또래관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1에 제시되었다.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이 인식하는 부모 간 갈등을 비교해보면,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0.888, p=.375$). 반면, 공격성에서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t=4.460, p<.001$),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공격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의 또래관계를 비교해 보면,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3.883, p<.001$). 여자 청소년의 또래관계 점수가 남자 청소년보다 더 높아, 여자 청소년의 또래관계가 남자 청소년의 또래관계보다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der differences in the variables

variables	Total			Male			Female			t
	N	M	SD	N	M	SD	N	M	SD	
parental conflict	482	3.738	.831	232	3.703	.836	250	3.771	.826	-0.888
aggression	482	2.329	.729	232	2.480	.781	250	2.189	.649	4.460***
peer relations	482	3.831	.745	232	3.696	.756	250	3.956	.714	-3.883***

Table 2. Correlations among the variables

	1. parental conflict	2. aggression	3. peer relations
1	1	.320***	-.170**
2	.346***	1	-.180**
3	-.287***	-.226**	1

*Coefficients above the diagonal are correlations for females; coefficients below the diagonal are correlations for males.

*** $p<.001$, ** $p<.01$

3.2 부모 간 갈등, 공격성 및 또래관계 간의 상관관계

부모 간 갈등과 공격성, 또래관계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남녀별 상관관계는 Table 2에 제시된 결과와 같다. 성별에 따라 변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 간 갈등과 공격성, 또래관계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남자 청소년 집단에서는 부모 간 갈등과 공격성($r=.346, p<.001$)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부모 간 갈등과 또래관계($r=-.287, p<.001$)간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성과 또래관계 간에도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r=-.226, p<.01$). 즉, 남자 청소년이 인식한 부모 간 갈등 수준이 높을 경우 공격성이 높았고 또래관계도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공격성이 높은 남자 청소년은 또래관계도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청소년 집단에서는 부모 간 갈등과 공격성($r=.320, p<.001$)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 간 갈등과 또래관계($r=-.170, p<.01$)간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공격성과 또래관계 간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r=-.180, p<.01$). 즉, 부모 간 갈등 수준이 높은 것으로 인식한 여자 청소년은 공격성 수준이 높았고 부정적인 또래관계를 경험하였다. 여자 청소년의 공격성 수준이 높을 경우 또래관계도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3.3 부모 간 갈등이 남녀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격성의 매개효과

부모 간 갈등이 남녀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35]가 제시한 단계에 따른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남녀 청소년 집단 별로 분석한 매개효과에 대한 결과는 Table 3, 4와 같다.

남자 청소년 집단의 경우 1단계에서 부모 간 갈등은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β

$=.346, p<.001$), 2단계에서 부모 간 갈등은 또래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287, p<.001$). 3단계에서 부모 간 갈등과 공격성을 동시에 투입한 결과, 공격성은 또래관계에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냈으며($\beta=-.144, p<.05$), 부모 간 갈등은 2단계에서보다 3단계에서 그 효과가 다소 감소하였다($\beta=-.237, p<.001$). 이는 부모 간 갈등이 공격성에 부분매개 되어 남자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낸다. 부모 간 갈등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유의하고 공격성을 매개로 하여 미치는 간접적 영향도 유의하기 때문에 공격성은 부모 간 갈등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부모 간 갈등이 남자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또한 부모 간 갈등은 공격성을 매개로 하여 남자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자 청소년 집단의 경우 1단계에서 부모 간 갈등은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320, p<.001$), 2단계에서 부모 간 갈등은 여자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170, p<.01$). 3단계에서는 매개변인인 공격성이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140, p<.05$), 독립변인인 부모 간 갈등은 3단계에서 그 효과가 감소하였고($\beta=-.125, p<.10$), 독립변인의 회귀계수가 유의성을 상실했기 때문에($p=.058$) 공격성이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부모 간 갈등의 유의한 영향력은 공격성과 동시에 투입되었을 때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아, 공격성은 부모 간 갈등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완전 매개역할을 하였다. 이를 통해 부모 간 갈등이 공격성을 매개로 하여 여자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모 간 갈등 수준을 높게 지각할수록 여자 청소년의 공격성 수준이 높고, 공격성 수준이 높을수록 여자 청소년은 부정적인 또래관계를 경험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Table 3. Mediating effects of aggression(male)

Step		β	t	p	F^2
1	parental conflict → aggression	.346	5.588	.000	.116
2	parental conflict → peer relations	-.287	-4.543	.000	.078
3	aggression → peer relations	-.144	-2.153	.032	.093
	parental conflict → peer relations	-.237	-3.552	.000	

Table 4. Mediating effects of aggression(female)

Step		β	t	p	R^2
1	parental conflict → aggression	.320	5.322	.000	.099
2	parental conflict → peer relations	-.170	-2.711	.007	.025
3	aggression → peer relations	-.140	-2.138	.033	.039
	parental conflict → peer relations	-.125	-1.903	.058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부모 간 갈등이 공격성을 매개로 하여 남녀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문제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이 인식하는 부모 간 갈등에서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공격성과 또래관계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공격성이 높았으며 여자 청소년의 또래관계가 남자 청소년의 또래관계보다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외현적 공격성을 보인다고 한 연구결과[36], 그리고 친구관계의 질이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의 경우 더 높았고, 친구관계에 있어서 여자 청소년은 남자 청소년에 비해 친밀한 대화나 충실성을 중시하며 더 관계 지향적이라는 Ahn과 Lee[3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둘째, 부모 간 갈등과 공격성, 또래관계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남녀 청소년 집단에서 부모 간 갈등과 공격성 간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공격성과 또래관계 간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부모 간 갈등과 또래관계 간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모 간 갈등이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남자 청소년 집단에서는 부모 간 갈등이 공격성에 부분매개 되어 남자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간 갈등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유의하고 공격성을 매개로 하여 미치는 간접적 영향도 유의하게 나타나 공격성은 부모 간 갈등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 매개하는 역할을 하였다. 부모 간 갈등은 남자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며, 또한 부모 간 갈등은 공격성을 매개로 하여 남자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자 청소년 집단에서는 부모 간 갈등이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격성이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간 갈등은 공격성을 매개로 하여 여자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쳤다.

남자 청소년 집단에서 부모 간 갈등은 공격성을 매개로 하여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부모 간 갈등이 또래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통해 남자 청소년의 경우 부모 간 갈등이 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자 청소년의 경우, 부모 간 갈등이 직접적으로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부모 간 갈등의 경험으로 인해 형성된 부정적 정서인 분노와 공격적 행동을 통해 또래관계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남녀 청소년 간의 차이를 규명하는 경험적인 연구가 앞으로 더 행해질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제시된 본 연구의 결과, 부모 간의 부부갈등은 청소년의 공격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부모 간 갈등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청소년의 공격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부모 간 갈등을 높게 지각하는 청소년일수록 공격성이 높다는 것을 밝힌 연구결과와[24,25] 일치하는 것이다. 부모의 부부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문제로 인해 청소년 자녀도 어려움과 고통을 느끼며, 이는 청소년의 공격성을 야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 간의 분노 표출에 노출된 자녀는 정서적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이는 공격적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대[22]. 성장기에 나타나는 공격성은 스트레스 같은 부정적 경험에의 지속적인 노출과 관련된다[37]. 자녀에게 있어 부모 간 갈등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의 공격성은 또래관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성 수준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부

정적인 또래관계를 경험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공격성 수준이 높을수록 초기 청소년은 자신의 또래관계를 부정적으로 지각한다는 것을 밝힌 연구[38], 그리고 공격성이 또래거부를 예측한다고 보고한 Coie와 Dodge[27]의 연구결과와 일관된다. 공격성이 높은 청소년은 사회적 기술의 결핍으로 인해 또래와 부적절한 상호작용을 하고 또래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된다. 공격적인 청소년은 또래의 정서적 지지를 낮게 지각하며,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경향이 나타난다[38].

본 연구에서 부모 간 갈등이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격성이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가 갈등 상황에서 분노나 공격성으로 상호작용 하는 것을 보면서 청소년 자녀의 스트레스와 분노 수준이 높아짐으로써 공격성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는 청소년이 맺는 또래와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 간 갈등의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 공격성이 높아지며, 이로 인해 청소년은 또래관계에도 문제를 경험하게 되어 청소년기에 부모와 또래로부터 필요한 심리적, 정서적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함으로써 가족과 또래관계에서 경험하는 문제가 더 심화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긍정적인 또래관계의 형성에 기여하는 부모 간 원만한 관계 같은 가족관계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은 청소년기 적응뿐만 아니라 이후의 삶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중요하다. 부모 간 갈등과 공격성이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로 볼 때 청소년의 또래관계 향상을 위해서는 부모 간 갈등에 대한 개입과 청소년의 공격성에 대한 개입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학교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또래관계 문제, 또래 괴롭힘, 학교폭력 등의 문제를 청소년의 부모 및 가족 경험과 청소년 개인의 심리 정서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따라서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부부갈등을 해결하고 부부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부모교육 및 상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인적인 심리 정서 문제와 또래관계를 다루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상담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또래관계 문제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해서는 부모 간 관계에 대한 개입과 청소년 개인, 그리고 청소년

의 또래관계에 대한 개입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이 보다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부모 간 갈등이 남녀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봄으로써, 부모 간 갈등이 청소년이 맺는 또래관계와 관련되는 과정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를 확장하여 남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부모 간 갈등이 공격성을 통해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의 가족 요인과 개인적 심리 정서 요인 및 또래관계가 관련되는 과정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통해서,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의 부부갈등에 대한 개입을 통하여 청소년 자녀의 공격성 수준을 낮추며 이로써 청소년의 또래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중학교 3학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전체 청소년에게 확대하여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공격성이 또래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또래관계는 다시 공격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이런 경로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또래관계 문제를 해결하며 청소년의 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1] M. J. Lee. (2001). *The relation between mother's attitude of bringing up, school condition and adolescents depres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 [2] M. H. Han. (1996). *A study on stress, perceived social supports, and behavior problems of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3] J. G. Parker & S. R. Asher. (1987). Peer relation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Are low-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 357-389.
- [4] J. S. Lee & H. J. Chung. (2004). The relations among adolescent's perception of parents' marital relationship, attachment with their parents, and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2(3), 47-61.
- [5] E. M. Cummings, M. Ballard, M. El-Sheikh & M. Lake.

- (1991). Resolution and children's responses to interadult anger. *Developmental Psychology*, 27(3), 462-470.
- [6] D. G. Kang. (2002). *Marital and parent-child relationship related to children's problem behavi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Buk University of Education, Cheongju.
- [7] J. L. Peterson & N. Zill. (1986). Marital disruption,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behavior problems in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2), 295-307.
- [8] G. W. Holden & K. L. Ritchie. (1991). Linking extreme marital discord, child rearing, and child behavior problems: Evidence from battered women. *Child Development*, 62(2), 311-327.
- [9] R. E. Emery & K. D. O'Leary. (1984). Marital discord and child behavior problems in a nonclinic sampl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2(3), 411-420.
- [10] P. T. Davies & E. M. Cummings. (1994).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an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 387-411.
- [11] E. M. Cummings & P. T. Davies. (2010).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 An emotional security perspective*. New York : The Guilford Press.
- [12] R. D. Parke & G. W. Ladd. (2016). *Family-peer relationships: Modes of linkage*. Hillsdale, NJ, US: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13] J. M. Gottman & L. F. Katz. (1989). Effects of marital discord on young children's peer interaction and health. *Developmental Psychology*, 25(3), 373-381.
- [14] P. Orpinas & R. Frankowski. (2001). The Aggression Scale: A self-report measure of aggressive behavior for young adolescents.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1(1), 50-67.
- [15] R. Loeber & M. Stouthamer-Loeber. (1998). Development of juvenile aggression and violence. Some common misconceptions and controversies. *American Psychologist*, 53(2), 242-259.
- [16] D. Olweus. (1993). *Understanding children's worlds. Bullying at school: What we know and what we can do*. Malden: Blackwell Publishing.
- [17] Y. O. Kwon & S. H. Yi. (1999).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behavior problems: The moderating effects of the resolution of martial conflict.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0(4), 61-74.
- [18] L. A. McCloskey & E. L. Lichter. (2003). The contribution of marital violence to adolescent aggression across different relationship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8(4), 390-412.
- [19] N. Long, R. Forehand, R., Fauber, & G. H. Brody. (1987). Self-perceived and independently observed competence of young adolescents as a function of parental marital conflict and recent divorc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5(1), 15-27.
- [20] J. Y. Hong & H. S. Doh. (2002). Parental marital conflict, attachment to parents, and peer relationships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0(5), 125-136.
- [21] M. J. Kim. (2002). *Relations of parenting behaviors, marital conflict, and sibling relations to aggression in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 [21] B. K. Park & H. S. Doh. (2002). Correlates of peer victimization: Personality traits, parent attachment, and marital conflict.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3(5), 51-64.
- [22] E. M. Cummings, R. Iannotti & C. Zahn-Waxler. (1985). The influence of conflict between adults on the emotions and aggression of young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1, 495-507.
- [23] J. M. Jenkins. (2000).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emotions: The development of an anger organiz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723-736.
- [24] E. H. Jung. (2004). *Relationships of marital conflict perceived by children, children's aggression, and bullies/victims of peer victimiz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Bucheon.
- [25] J. E. Cha, J. Y. Lee, & S. H. Hwang. (2009). The mediating effect of shame and fear of abandonment on adolescents' depression and aggression: Comparison of boy and girl students model. *Journal of Youth Facility & Environment*, 7(2), 3-15.
- [26] S. O. Son & B. J. Lee. (2015). A study of influencing factors of adolescent social relations: Examining the mediating effects of aggression and depression, and gender difference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2(10), 1-26.
- [27] J. D. Coie & K. A. Dodge. (1998). Aggression and antisocial behavior. In W. Damon & N. Eisenberg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pp. 779-862). Hoboken, NJ, US: John Wiley & Sons Inc.
- [28] J. D. Coie, K. A. Dodge, R. T. V. Wright. (1991). The role of aggression in peer relations: An analysis of aggression episodes in boys' play groups. *Child development*, 62(4), 812-826.
- [29] N. R. Crick & N. E. Werner. (1998). Response decision processes in relational and overt aggression. *Child*

- Development*, 69(6), 1630-1639.
- [30] A. J. Yoo, Y. J. Han & J. K. Kim. (2002). Aggression and quality of peer relationships in early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3(3), 79-90.
- [31] E. E. Maccoby & C. N. Jacklin. (1980). Sex differences in aggression: A rejoinder and reprise. *Child Development*, 51, 964-980.
- [32] S. Y. Ahn & H. S. Lee. (2009). The effects of individual psychology and family variables on adolescents' peer relationship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21(3), 163-176.
- [33] C. R. Seo & H. S. Lee. (2006). The effects of family environment and individual psychological variables on adolescents' problem behavior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18(2), 151-162.
- [34] S. K. Seo & S. M. Kwon. (2006). Validation stud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1(2), 487-501.
- [35] R. M. Baron & D. A. Kenny.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36] N. R. Crick, J. F. Casas & M. Mosher. (1997). Relational and overt aggression in preschool. *Developmental Psychology*, 33(4), 579-588.
- [37] T. Malti & K. H. Rubin. (2018). Aggression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In T. Malti & K. H. Rubin (Ed.), *Handbook of Child and Adolescent Aggression*(pp. 3-19).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38] A. J. Yoo, Y. J. Han, & N. Y. Choi. (2002). Institutionalized and home-reared adolescents perception of social support and aggression.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0(3), 57-82.

이 형 실(Hyong-Sil Lee)

[정회원]



- 1995년 3월 ~ 현재 :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관심분야 : 부모역할, 가족관계, 심리적 적응
- E-Mail : hslee97@hotmail.com

오 샘 물(Seam-Mull Oh)

[학생회원]



- 2015년 2월 : 총신대학교 유아교육과 학사
- 2017년 3월 ~ 현재 : 중앙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과 석사과정
- 관심분야 : 부모교육, 교육심리, 또래관계
- E-Mail : ohsemmul@naver.com